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최미나** 신나나***

The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of Day-care Experiences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 on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Choi, Mi na Shin, Nana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만 3-5세 유아 248명(남아: 112명, 여아: 136명)과 그들의 어머니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어머니들은 보육경험(보육 시작 시기, 1일 평균 보육시간, 주당 평균 보육일, 보육기관 변경횟수), 양육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된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경험 중 보육기관 변경횟수가 잦을수록 유아는 공격성을 더 보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논리적 설명, 강압, 방임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경험이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보육경험의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제안한다.

▶ 주제어 : 보육경험,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문제행동

* 본 논문은 201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본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5259).

** 제 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E-mail : pig800g@gmail.com)

***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E-mail : nanashin@ewha.ac.kr)

I. 서론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저출산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자녀 양육 방식에 변화가 생기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저하되면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문제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아동의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다(박혜정, 2009). 유아기 문제행동은 발달 단계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인지, 신체, 사회정서의 각 영역에서의 발달속도의 차이로 인한 유아의 좌절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유아기 보이는 문제행동은 대부분 일시적인 것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사라지지만, 전체 유아의 3-5% 정도는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며(오경자, 이혜련, 1990;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Briggs-Gowan, Carter, Bosson-Heenan, Guyer, & Horwitz, 2006), 이러한 경우 청소년기 문제행동으로까지 이어짐은 물론(Campbell & Ewing, 1990; Emond, Ormel, Veenstra, & Oldehinkel, 2007; Fischer, Rolf, Hadazi, & Cummings, 1984),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지속되었다고 보고한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Garbarino & Vondra, 1987; Jokela, Power, & Kivimäki, 2009; 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다시 말해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현재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적응상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문장원, 2001; Hwang & James-Roberts, 1998; McGuire & Richman, 1988; Patterson, Capaldi, & Bank, 1991; Richman, Stevenson, & Graham, 1982), 예방적 차원에서 유아기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선행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문제행동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령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에 적절하지 않은 역기능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문제행동은 크게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구분되는데(Achenbach & Edelbrock, 1983), 외현화 문제행동은 공격성, 반항적 행동 등과 같이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내면화 문제행동은 위축, 우울, 불안과 같이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지나치게 억눌러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현화/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유아의 보육경험으로, 이러한 관심은 여성의 사회진출 및 핵가족화 현상과 같은 사회적 배경과 맞물려 있다. 보육경험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보육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수는 최근 급증하여 2003년에는 24.5%이었던 것이(보건복지부, 2003), 2013년에는 53.6%(보건복지부, 2013a)로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보육 시작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 2004년에는 평균 41.4개월 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26.7개월로 대략 15개월 정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3a). 이처럼 더 이른 시기에 보육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유아의 발달과 적응에 보육경험이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보육경험이 유아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국외에서는 1980년대 이후로 활발하게 연구되었는데, 초기 연구들은 보육경험이 아동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적인 결과들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즉, 보육경험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Andersson, 1992; Field, 1991; McCrae & Herbert-Jackson, 1976)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들(Belsky, 1986; Borge & Melhuish, 1995; Clarke-Stewart, 1989; Doyle, 1975; Haskins, 1985), 그리고 보육경험과 아동발달 간의 관련성을 찾지 못한 연구결과들(Caughy, DiPietro, & Strobino, 1994; Howes, 1988; Rubin, Hastings, Chen, Stewart, & McNichol, 1998; Scarr, 1998)이 함께 나타나 이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쟁으로부터 최근에는 보육경험을 하나의 단일차원으로 보기 보다는 보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김숙령, 1997; Barglow, Vaughn, & Molitor, 1987; Park & Honig, 1991), 보육시간(김정화, 이재연, 2013; Hausfather, Toharia, LaRoche, & Engelsmann, 1997; Howes, 1988; NICHD, 1999), 보육의 안정성(Clarke-Stewart, Gruber, & Fitzgerald, 1994; Howes & Olenick, 1986; Howes & Stewart, 1987; Vandell & Powers, 1983), 보육의 질(Caughy et al., 1994; Howes, 1990; McCartney, Scarr, Phillips, & Grajek, 1982; Vaughn, Deane, & Waters, 1985; Vaughn, Gove, & Egeland, 1980) 등과 같은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육의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육경험에 관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보육 시작 시기와 관련하여, 보육을 일찍 시작할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박경자, 1992; 이상아, 이경숙, 2013; Borge & Melhuish, 1995; Clarke-Stewart, 1989; Haskins, 1985; Schwarz, Strickland, & Krolick, 1974; Vandell & Corasaniti, 1990), 생후 초기부터 시작한 보육이 아동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나고 있다(Burchinal, Ramey, Reid, & Jaccard, 1995).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Anderson(1992)은 이른 시기에 보육을 시작하였을 경우 학업 성취도와 같은 인지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보육시간에 있어서도 상반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는데, 많은 시간을 보육기관에서 보내는 유아는 공격적이고(Bates et al., 1994; Belsky, 2001; Belsky & Rovine, 1988; NICHD, 2003; Vlietstra, 1981), 우울을 더 느끼며(남궁수진, 최영희, 2008), 위축된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연구(Barton & Schwarz, 1981)가 있는 반면, 보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회 · 정서적으로 유능하며, 내면화 문제행동을 적게 보였다는 연구(김지선, 2009)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 다음으로 보육의 안정성은 보육 시작 시기와 보육시간에 비해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보육기관을 많이 옮겨 다닌 유아는 문제행동(Belsky & Rovine, 1988; NICHD, 1997)과 반항적인 행동(박경자, 1992)을 더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보육의 질이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두려움이 많은 기질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지만, 양질의 보육기관에서의 경험을 쌓은 아동은 높은 친사회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Volling & Feagans, 1995). 또한 McCatney 등(1982)은 출생 초기부터 타인 보육을 시작하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양질의 보육을 제공한다면 오히려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면서 보육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보육경험의 구성요소 중 본 연구에서는 보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다른 구성요소들보다 유아의 발달 및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NICHD, 2003)에 근거하여, 보육의 양적인 측면인 보육 시작 시기와 보육시간(1일 평균 보육시간, 주당 평균 보육일)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그 영향이 일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된 보육의 안정성을 측정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또한 많은 주목을 받은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행

동으로,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권미경, 김혜원, 안혜영, 이주원, 2005; 이찬숙, 이채호, 2009; 최지영, 김미애, 2010; 하영희, 2003; 홍현재, 문혁준, 2013; Adam, Gunnar, & Tanaka, 2004; Belsky, Woodworth, & Crnic, 1996; Crockenberg & Litman, 1991; Shaw, Owens, Giovannelli, & Winslow, 2001).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우 아동은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 행동(강차연, 장연집, 1999; 공영숙, 임지영, 2012; 김보영, 2005; 박혜미, 2010; Dodge, Pettit, & Bates, 1994; Miller, Cowan, Hetherington, & Clingempeel, 1993; Mize & Pettit, 1997; Zhou et al., 2002)과 우울이나 위축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강차연, 장연집, 1999; 공영숙, 임지영, 2012; 박서영, 2007; 서찬란, 2005)을 덜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지도하는 경우 불안, 위축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덜 보였고(김정희, 문혁준, 2004), 남아에게서 공격성이 적게 나타났다(권연희, 2003). 반면, 어머니의 간섭과 개입은 아동의 높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었으며(Pettit, Harrist, Bates, & Dodge, 1991), 어머니가 아동을 방임할 경우 아동은 공격성(강기숙, 이경남, 2001; 김문정, 2003; 김선미, 2005; 김현정, 2001; 정인선, 2006; 홍현재, 문혁준, 2013; Olweus, 1991; Schaefer, 1959)뿐 아니라 우울하고 불안한 행동 또한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애경, 2003; 문상희, 2011; 최연희, 2000).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보육요인과 가정요인을 함께 고려한 초기 연구들에서는 두 변인이 유아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가정요인이 유아의 적응과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양연숙, 조복희, 1996; Belsky, 1997; Kontos & Fiene, 1987; NICHD, 1997, 1998a; Prodromidis, Lamb, Sternberg, Hwang, & Broberg, 1995)이 있는 반면, 보육의 양과 질과 같은 보육경험이 가정요인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고한 연구들(이경희, 1995; 조혜진, 이기숙, 2004)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보육요인과 가정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발달적 맥락에서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밝히기 위한 시도로 이어졌다(양연숙, 조복희, 2001; 하지영, 2004; Caldera & Hart, 2004; NICHD, 1998a). 즉, 보육경험이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보육경험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실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경우, 보육의 질이 낮은 집단에서 주당 보육시간이 많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고은주, 2003), 하지영(2004)은 활동수준이 낮은 남아는 통제적인 양육을 받지 않을 경우, 주당 보육시간이 적을수록 불순응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Caldera와 Hart(2004)는 보육시간이 안정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양육의 질에 의해 중재되었으며, 양연숙과 조복희(2001)는 타인양육 시작시기와 타인양육의 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상호작용하여 영아의 안정애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유아의 적응과 발달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육 시작 시기, 보육시간, 보육기관 변경 횟수와 같은 보육경험 뿐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같은 여러 환경 체계들의 상호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제언(NICHD, 1997)에 근거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경험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남 김해시 소재의 어린이집에 3개월 이상 재원중인 만 3-5세 유아 248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3-5세의 유아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 보육시설 이용률이 3세 57.4%, 4세 40.9%, 5세 33.4%(보건복지부, 2013b)로 높으며, 초기 유아기에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후기 유아기로 갈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문상희, 2011)에 근거하였다. 즉, 공격성 뿐 아니라 우울 ·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포함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만 3-5세의 초기와 후기 유아기 아동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3개월 이상 재원한 유아로 한정된 이유는 재원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은 되어야 보육기관에서의 경험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Clarke-Stewart, 1989)에 근거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의 연령은 만 5세가 97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만 4세가 94명(37.9%), 만 3세가 57명(23.0%)이었다($M = 4.16$ 세, $SD = 0.77$ 세). 유아의 성별은 여아가 136명(54.8%), 남아가 112명(44.8%)으로 남아보다 여아가 다소 많았다.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35~39세가 111명(44.9%)과 114명(46.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34세가 아버지는 52명(24.1%), 어머니는 84명(33.9%)이었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이 121명(48.8%), 2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 중퇴가 69명(27.8%)이었으며, 어머니는 2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 중퇴가 113명(45.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이 87명(35.1%)이었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110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직 38명(15.3%), 자영업 및 일반 판매직 37명(14.9%)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가정주부가 109명(4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52명(21.0%), 전문직이 27명(10.9%)이었다. 월 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가정이 104가구(41.9%)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60가구(24.2%), 400만원 이상이 69가구(27.8%)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보육경험,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들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어머니 보고로 측정되었다.

1) 보육경험

본 연구에서 보육경험은 출생 후 가정이 아닌 보육기관에서 보육을 받은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육 시작 시기, 1일 평균 보육시간, 주당 평균 보육일, 보육기관 변경횟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보육 시작 시기는 유아가 최초로 보육을 시작한 연령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1일 평균 보육시간과 주당 평균 보육일은 각각 유아가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보육기관에 머무르는 시간과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보육기관에 등원하는 일수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보육기관 변경횟수는 유아가 가정외 보육을 시작한 이래 총 몇 개의 보육기관에서 보육을 받았는지를 의미한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이선희(2012)가 제작한 저학년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를 나지혜(2012)가 유아용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온정(9문항), 논리적 설명(10문항), 개입(9문항), 강압(7문항), 방임(10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먼저 온정은 ‘아이와 함께 따뜻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낸다.’, ‘아이에게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한다.’ 등의 문항이, 논리적 설명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준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를 설명해준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개입은 ‘아이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한다.’, ‘부모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르도록 한다.’ 등의 문항을, 강압은 ‘이유를 설명하기 보다는 별로써 아이를 지도한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고함을 지른다.’ 등의 문항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임은 ‘아이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다.’,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모두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어머니의 온정, 논리적 설명, 개입이 각각 .81이었으며, 강압이 .83, 방임이 .82이었다.

3)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유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한국 유아에게 유용하도록 2차 표준화 작업을 한 K-CBCL을 박철웅(2003)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공격성(14문항), 위축(8문항), 우울·불안(6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의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 별 문항의 예를 들면, 공격성에는 ‘남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군다.’,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등이 있으며, 위축은 ‘수줍거나 소심하다.’, ‘위축되어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우울·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잘 운다.’, ‘자의식이 지나치고 쉽게 무안해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모두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 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공격성, 위축, 우울 · 불안 모두 .80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3년 8월 중에 경남 김해 소재 평가인증제도를 통과한 보육시설 7곳에서 기관장 동의하에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설문지 배부 전 기관을 방문하여 총 20개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질문지는 담임교사를 통해 유아의 어머니에게 배부 · 회수되었다. 모든 설문지는 배부 후 7일 이내에 회수되었으며, 배부된 350부 중 260부가 회수되어 약 7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들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24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도구의 각 하위요인의 문항 간 내적일치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예비분석으로 각 연구 변인에서 성차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고,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각각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경우, Aiken과 West(1991)의 절차에 따라 사후검정(post-hoc)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변인들에서의 성차 및 상관관계

유아의 성별에 따라 보육경험,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보육경험,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반적으로 변인들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표 1〉). 먼저 보육경험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1일 평균 보육시간($r=.13, p<.05$)과 보육기관 변경횟수($r=.16, p<.05$)가 유아의 공격성과 정적상관을 보여, 1일 평균 보육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보육기관을 많이 옮겨 다닌 유아일수록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상관정도는 높지 않았다.

〈표 1〉 보육경험,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 상관관계

(N=248)

	1	2	3	4	5	6	7	8	9	10	11	12
<u>보육경험</u>												
1. 보육 시작 시기	-											
2. 1일 평균 보육시간	-.04	-										
3. 주당 평균 보육일	-.07	.14*	-									
4. 보육기관 변경횟수	-.46***	.20**	.04	-								
<u>어머니의 양육행동</u>												
5. 온정	.04	-.08	.04	-.13*	-							
6. 논리적 설명	.18**	-.03	.02	-.02	.60*	-						
7. 게임	.20**	.07	-.07	.16*	-.28***	-.06	-					
8. 강압	-.04	.08	-.06	.13*	-.43***	-.32***	.61***	-				
9. 방임	-.10	-.01	-.11	.00	-.25***	-.16**	.28***	.46***	-			
<u>유아의 문제행동</u>												
10. 공격성	-.02	.13*	-.03	.16*	-.21**	-.11	.28***	.41***	.42***	-		
11. 위축	.02	.10	.09	.06	-.23***	-.05	.30***	.40***	.42***	.83***	-	
12. 우울·불안	.06	.08	-.11	.08	-.17**	.03	.30***	.37***	.61***	.76***	.78***	-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온정은 유아의 공격성($r=-.21, p<.01$), 위축($r=-.23, p<.001$) 및 우울·불안($r=-.17, p<.01$)과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즉,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유아는 공격성, 위축행동 및 우울·불안을 덜 보였다. 어머니의 개입, 강압, 방임 모두 유아의 공격성($r=.28\sim.42, p<.001$), 위축($r=.30\sim.42, p<.001$), 우울·불안($r=.30\sim.61,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여, 어머니가 개입, 강압, 방임을 많이 할수록 유아는 공격적인 행동과, 위축, 우울·불안을 더 많이 보였다. 어머니의 논리적 설명은 유아의 문제행동의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보육 시작 시기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논리적 설명($r=.18, p<.01$)과 개입($r=.20, p<.01$)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 시작 시기가 늦을수록 어머니가 논리적 설명과 개입을 더 많이 하였다. 또한 보육기관 변경횟수는 어머니의 온정과는 부적 상관을($r=-.13, p<.05$), 개입($r=.16, p<.05$)과 강압($r=.13, p<.05$)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보육기관을 많이 옮겨 다닌 유아의 어머니일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보이고, 자녀 양육 시 개입 및 강압행동을 많이 보였다.

2. 보육경험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육경험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보육 시작 시기, 1일 평균 보육 시간, 주당 평균 보육일, 보육기관 변경횟수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문제행동의 각 하위요인인 공격, 위축, 우울·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앞서 상관관계에서처럼 보육경험은 공격성의 분산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나, 그 설명력은 4% 정도로 높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육경험 중 보육기관 변경횟수만이 유아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17, p<.05$). 보육경험은 유아의 위축과 우울·불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2〉 보육경험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N=248)

독립변인	공격성		위축		우울·불안	
	B	β	B	β	B	β
보육 시작 시기	.02	.07	.02	.06	.04	.12
1일 평균 보육시간	.06	.11	.05	.09	.04	.07
주당 평균 보육일	-.04	-.06	-.01	-.02	-.04	-.06
보육기관 변경횟수	.06	.17*	.03	.08	.04	.12
$F(df_1, df_2)$	2.66*(4, 243)		.91(4, 243)		1.52(4, 243)	
R^2	.04		.02		.02	

* $p<.05$

3.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인 온정, 논리적 설명, 개입, 강압, 방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인 공격성, 위축, 우울·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세 번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격성의 분산의 24%를 설명하였고,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강압($\beta=.22, p<.01$)과 방임($\beta=.29, p<.001$)이 유아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강압적이고 방임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유아는 공격성을 더 보였다. 다음으로 유아의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위축의 분산을 25% 설명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강압($\beta=.21, p<.01$)과 방임($\beta=.30, p<.001$)이 유의하여, 어머니가 강압적이고 방임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유아는 위축행동을 더 보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우울·불안을 4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논리적 설명($\beta=.22, p<.01$)과 방임($\beta=.55, p<.001$)이 유아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논리적 설명을 많이 하고 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는 우울·불안을 더 보였다.

〈표 3〉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N=248)

독립변인	공격성		위축		우울 · 불안	
	B	β	B	β	B	β
온정	-.03	-.04	-.09	-.13	-.07	-.10
논리적 설명	.02	.03	.10	.15	.14	.22**
개입	.04	.07	.04	.06	.03	.05
강압	.10	.22**	.10	.21**	.05	.10
방임	.18	.29***	.20	.30***	.35	.55***
$F(df_1, df_2)$	15.60*** (5, 242)		15.94*** (5, 242)		33.83*** (5, 242)	
R^2	.24		.25		.41	

** $p<.01$, *** $p<.001$

4.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보육경험(A)의 하위요인인 보육 시작 시기, 1일 평균 보육시간, 주당 평균 보육일, 보육기관 변경횟수와 어머니의 양육행동(B)의 하위요인인 온정, 논리적 설명, 개입, 강압, 방임, 그리고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A×B)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문제행동인 공격성, 위축, 우울·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유아의 보육경험의 각 하위

요인(A)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B)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유아의 보육경험의 각 하위요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 간의 상호작용항(A×B)을 추가로 투입한 후 유아의 공격성, 위축, 우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은 각 변인을 중심화(변인 - 변인의 평균)한 후 중심화한 두 변인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모든 하위요인, 즉 공격성(1가지), 위축(3가지), 우울·불안(3가지) 모두에서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Aiken과 West(1991)의 절차에 따라 사후검정(post-hoc)을 실시하고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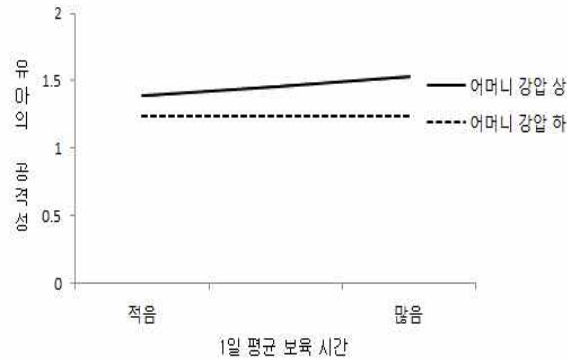
1)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보육경험 중 1일 평균 보육시간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강압이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먼저 1단계에서 1일 평균 보육시간과 어머니의 강압을 동시에 투입하여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강압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40, p<.001$), 두 변인은 함께 유아의 공격성의 분산의 17%를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 1일 평균 보육시간과 어머니의 강압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1일 평균 보육시간과 어머니의 강압이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12, p<.05$), 그 추가 설명력은 1%로 크지 않았다. 유의한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 경우 1일 평균 보육시간이 많아질수록 유아의 공격성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5, p<.01$). 반면 어머니가 강압을 적게 하는 경우에는 1일 평균 보육시간이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01, p>.05$)(그림 1).

〈표 4〉 1일 평균 보육시간과 어머니의 강압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N=248)

독립변인	모형 1		모형 2	
	B	β	B	β
1일 평균 보육시간(A)	.06	.10	.07	.12*
어머니의 강압(B)	.18	.40***	.18	-.40***
A X B			.12	.12*
$F(df_1, df_2)$	26.68*** (2, 245)		4.51* (3, 244)	
ΔR^2	-		.01	
R^2	.17		.18	

* $p<.05$, *** $p<.001$



[그림 1] 1일 평균 보육시간과 어머니의 강압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2)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위축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위축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보육 경험 중 보육 시작 시기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개입, 강압, 방임과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먼저 보육 시작 시기와 어머니의 개입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보육 시작 시기와 어머니의 개입을 동시에 투입하여 유아의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개입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30, p<.001$), 두 변인은 함께 유아의 위축의 분산의 8%를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보육 시작 시기와 어머니의 개입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보육 시작 시기와 어머니의 개입이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8, p<.01$),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은 유아의 위축의 분산을 추가로 3% 더 설명하여 총 11%를 설명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어머니가 개입을 많이 할 경우에는 보육 시작 시기가 늦을수록 위축된 행동을 많이 보인 반면($\beta=.20, p<.05$), 어머니가 개입을 적게 할 경우에는 보육 시작 시기와 위축과 관련이 없었다 ($\beta=-.15, p>.05$)(그림 2).

다음으로 보육 시작 시기와 어머니의 강압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보육 시작 시기와 어머니의 강압을 동시에 투입하여 유아의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강압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0, p<.001$). 두 변인은 함께 유아의 위축의 분산을 15%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보육 시작 시기와 어머니의 강압이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6, p<.01$), 상호작용항은 유아의 위축을 추가로 2% 더 설명하여, 총 17%를 설명하였다. 유의한 상호작용에 대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강압을 많이 하는 집단의 유아는 어머니가 강압을 적게 하는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많이 보였으며, 보육을 늦게 시작할수록 유아가 위축된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9, p<.05$). 또한 어머니가 강압을 적게 하는 집단은 보육 시작 시기에 관계없이 위축된 행동을 더 적게 보였($\beta=-.10, p>.05$)(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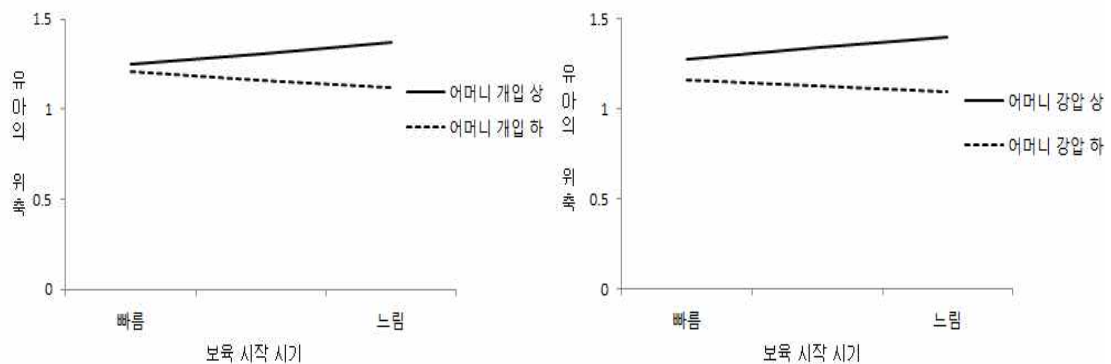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보육 시작 시기와 어머니의 방임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 보육 시작 시기는 유아의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방임적 양육행동을 더 보일수록 유아는 위축행동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2, p<.001; R^2=.17$). 2단계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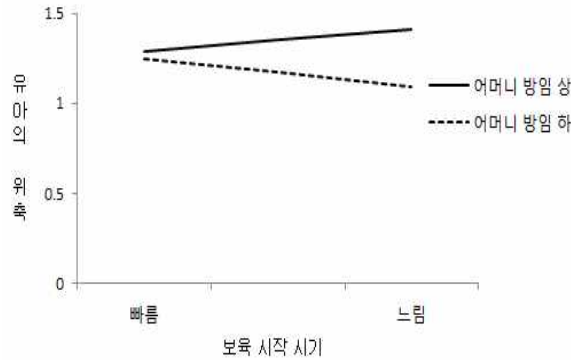
보육 시작 시기와 어머니의 방임이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9, p<.001$), 상호작용항은 유아의 위축을 추가로 7% 더 설명하여 총 24%를 설명하였다. 어머니가 방임을 많이 할 경우 보육 시작 시기가 느릴수록 유아의 위축된 행동을 더 보였지만($\beta=.19, p<.01$), 어머니가 방임을 적게 할 경우에는 보육 시작 시기가 느릴수록 위축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8, p<.001$)(그림 2).

<표 5> 보육 시작 시기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위축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N=248)

독립변인	모형 1		모형 2	
	B	β	B	β
보육 시작 시기(A)	.01	.04	.01	.02*
어머니의 개입(B)	.19	.30***	.16	.24***
A X B			.12	.18**
$F(df_1, df_2)$	12.14*** (2, 245)		7.74** (3, 244)	
ΔR^2	-		.03	
R^2	.08		.11	
보육 시작 시기(A)	.02	.06	.01	.04
어머니의 강압(B)	.20	.40***	.17	.35***
A X B			.08	.16**
$F(df_1, df_2)$	23.36*** (2, 245)		6.93*** (3, 244)	
ΔR^2	-		.02	
R^2	.15		.17	
보육 시작 시기(A)	-.01	-.02	-.01	-.05
어머니의 방임(B)	.28	.42***	.20	.29***
A X B			.17	.29***
$F(df_1, df_2)$	26.21*** (2, 245)		21.85*** (3, 244)	
ΔR^2	-		.07	
R^2	.17		.24	

* $p<.05$, ** $p<.01$, *** $p<.001$





[그림 2] 보육 시작 시기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위축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3)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보육 시작 시기와 어머니의 개입 및 강압, 그리고 1일 평균 보육시간과 어머니의 강압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먼저 보육 시작 시기와 어머니의 개입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1단계에서 보육 시작 시기와 어머니의 개입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어머니의 개입만이 유아의 우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9, p<.001; R^2=.08$). 2단계에서 보육 시작 시기와 어머니의 개입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보육 시작 시기와 어머니의 개입이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쳤으며($\beta=.20, p<.01$), 상호작용항은 유아의 우울·불안을 추가로 3% 더 설명하여 총 11%를 설명하였다. 유의한 상호작용에 대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개입을 할 경우에는 보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늦을수록 유아의 우울·불안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6, p<.01$). 반면, 어머니가 개입을 적게 하는 경우에는 보육 시작 시기와 유아의 우울·불안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beta=-.14, p>.05$)(그림 3).

다음으로 보육 시작 시기와 어머니의 강압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는 어머니의 강압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37, p<.001$), 보육 시작 시기와 어머니의 강압은 함께 유아의 우울·불안의 분산을 14%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보육 시작 시기와 어머니의 강압은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쳤으며($\beta=.21, p<.01$), 상호작용항은 유아의 우울·불안을 추가로 3% 더 설명하여 총 17%를 설명하였다. 유의한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강압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늦게 시작할수록 유아의 우울·불안한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7, p<.01$). 반면, 어머니가 강압을 적게 할 경우에는 보육 시작 시기는 유아의 우울·불안과 관련이 없었다($\beta=-.12, p>.05$)(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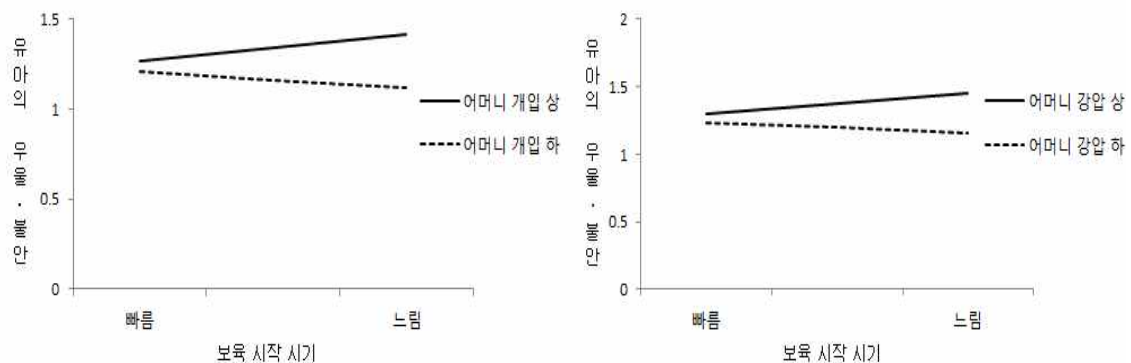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1일 평균 보육시간과 어머니의 강압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는 어머니의 강압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36, p<.001$), 유아의 우울·불안의 분산의 13%를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1일 평균 보육 시간과 어머니의 강압이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4, p<.05$), 유아의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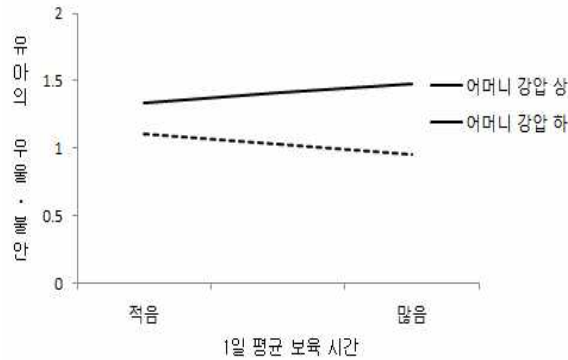
울·불안을 추가로 1% 더 설명하여 총 14%를 설명하였다. 유의한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강압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1일 평균 보육시간 이 증가할수록 우울·불안을 많이 보였지만($\beta=.22, p<.05$), 어머니가 강압을 적게 하는 경우에는 1일 평균 보육시간은 우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07, p>.05$)(그림 3).

<표 6>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N=248)

독립변인	모형 1		모형 2	
	B	β	B	β
보육 시작 시기(A)	.02	.07	.02	.06
어머니의 개입(B)	.17	.29 ^{***}	.13	.22 ^{***}
A X B			.13	.20 ^{**}
$F(df_1, df_2)$	11.48 ^{***} (2, 245)		11.26 ^{***} (3, 244)	
ΔR^2	-		.03	
R^2	.08		.11	
보육 시작 시기(A)	.03	.10	.02	.07
어머니의 강압(B)	.17	.37 ^{***}	.15	.31 ^{***}
A X B			.09	.21 ^{**}
$F(df_1, df_2)$	20.33 ^{***} (2, 245)		18.16 ^{***} (3, 244)	
ΔR^2	-		.03	
R^2	.14		.17	
1일 평균 보육시간(A)	.03	.05	.04	.07
어머니의 강압(B)	.17	.36 ^{***}	.17	.36 ^{***}
A X B			.14	.14 [*]
$F(df_1, df_2)$	19.15 ^{***} (2, 245)		14.81 [*] (3, 244)	
ΔR^2	-		.01	
R^2	.13		.14	

* $p<.05$, ** $p<.01$, *** $p<.001$





[그림 3]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5세의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보육경험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보육기관 변경횟수만이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의 안정성이 낮을수록 유아의 공격성을 더 보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들(남궁수진, 최영희, 2008; Crockenberg & Litman, 1991)과 일치한다. 이는 양육자의 잦은 변경과 관련한 문제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보육기관을 자주 변경한 유아의 경우 교사와 신뢰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공격성을 더 표출하였을 수 있다. 반면 보육 시작 시기와 보육시간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육 시작 시기(이상아, 이경숙, 2013; Barton & Schwartz, 1981; Belsky & Eggebean, 1991; Vandell & Corasaniti, 1990)와 보육시간(고은주, 2003; 문은미, 2011; 조혜진, 이기숙, 2004; Belsky, 2001; NICHD, 1998b, 2003)이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부모 양육, 친인척 양육, 비혈연 양육 등 다양한 보육의 형태 중 본 연구에서는 기관보육만을 포함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기관보육 뿐 아니라, 타인보육까지 포함하여 유아의 총체적인 보육경험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논리적 설명, 강압과 방임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가 논리적인 설명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우울과 불안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지도를 하는 경우 유아의 공격적인 행동(유정미, 권희경, 2009; 홍현재, 문혁준, 2013)과 불안, 위축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김정희, 문혁준, 2004)이 줄어들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으나, 모든 자료를 동일한 시점에서 수집한 본 연구의 특성상 논리적 설명이 유아의 우울이나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울하거나 불안을 많이 보이는 유아에게 어머니가 논리적 설명을 더 많이 제공하

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설계를 통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가 유아에게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는 공격성과 위축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강압적 양육행동과 유사한 신체적 처벌과 제한을 가할 경우 유아가 외현화 문제행동(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Chang, Schwartz, Dodge, & McBride-Chang, 2003)과 내면화 문제행동(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김민정, 2013)을 더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유아는 타인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사회적 상황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위축된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격성, 위축 및 우울 ·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방임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가 문제행동을 더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문상희, 2011; Kim & Cicchetti, 2009; Tyler, Allison, & Winsler, 2006) 일치한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요구에 무관심하고 애정과 훈육이 철회된 양육을 할 때, 유아는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은 물론, 위축, 우울 ·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도 더 보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과 개입은 유아의 문제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할 때 아동이 문제행동을 적게 보였으며(김미혜, 옥경희, 천희영, 2003; Booth, Rose-Krasnor, McKinnon, & Rubin, 1994; Deković & Janssens, 1992), 어머니가 지나치게 자녀의 행동에 개입하고 간섭할 때 아동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선행연구(Pettit et al., 1991)와 일치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온정과 개입이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유아의 공격성, 위축, 우울 · 불안과 모두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관련이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선행연구와의 불일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온정과 개입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양육행동의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강압과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의 영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보육경험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어머니가 개입, 강압 및 방임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늦게 시작할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개입과 강압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늦게 시작할수록 유아는 위축되고 우울 ·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어머니가 방임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보육 시작 시기가 늦을수록 유아는 위축된 행동을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수입, 가족구조, 어머니의 우울 등 위험요인을 가진 가정의 아동이 부모에게 양육 받는 경우와 보육기관에 다니는 경우를 관찰한 결과, 부모에게 양육되는 경우에는 2세에 비해 4세에 내면화된 문제행동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에 보육기관에서 보육 받은 아동은 2세에 비해 4세에 내면화된 문제행동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한 Lemay, Bigras 그리고 Bouchard(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경우 보육기관에서 보육받을 경우 위축된 모습을 덜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Egeland & Hiester, 1995)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 시작 시기가 모든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

니며, 어머니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른 보육 시작 시기가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어머니가 개입과 강압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하는 경우에는 보육 시작 시기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방임을 적게 하는 경우에는 보육 시작 시기가 늦을수록 유아는 위축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적절하게 보호하는 양육행동을 하는 경우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함께 보내고 보육 기관에 늦게 입소하는 것이 유아의 위축행동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발달에 가장 중요한 예측 인자가 된다는 많은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통제력, 순응성,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종단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보육경험보다 아동의 발달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한 연구결과(NICHHD, 1998b)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즉,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경우 유아는 어머니와 생애초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면화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언한다.

다음으로 1일 평균 보육시간은 어머니의 강압과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공격성과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강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경우에 1일 평균 보육시간이 길수록 유아의 공격성과 우울·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비록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유아의 공격성과 우울·불안에 대한 추가적 설명력이 크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경험 자체 보다 보육경험이 다른 위험요인과 합쳐졌을 때 그 위험이 증가하여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 ‘이중 위험 모델(dual risk model)’로 설명해 볼 수 있다(NICHHD, 1997). 즉, 보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아는 장시간의 보육경험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집에서 어머니에게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받음으로써 더욱 공격적이고, 우울·불안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생후 첫 3년 동안 아동이 보육기관이나 타인을 통해 보육을 많이 받은 경우 어머니는 자녀와 공유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자녀의 행동과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곧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Belsky, 1997; NICHHD, 1999)에 근거해 볼 때, 보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아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특성과 자녀가 하는 행동의 원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유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졌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어머니가 강압을 적게 하는 경우, 유아는 1일 평균 보육 시간에 관계없이 공격성, 우울·불안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Webster-Stratton & Herbert, 1994)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바꾸어 말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아동이 보육 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지라도,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지 않고 질적인 양육 행동을 할 경우에는 유아의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보고한 Kail(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경험 중에서 보육의 양적 측면만 고려하였으며, 보육의 질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에 재원 하는 유아와 그의 어머니로 한정하여 본 연구에 참가한 유아가 경험하는 보육의 질을 평준화 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보육의 질이 보육의 양적 경험과 더불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한 점(고은주, 2003; Anderson, 1992; Haskins, 1985; McCartney et al., 1982; Sagi, Koren-Karie, Gini, Ziv, & Joels, 2002; Schwarz et al., 1974)을 고려해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보육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하여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구분하여 양육행동을 측정하지 않았지만, 보육기관에 재원 하는 유아의 어머니를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유아만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측정된 유아의 문제행동이 보육기관에서의 경험으로 인한 것인지, 유아 개인의 개별적인 특성으로 인한 것인지 규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유아와 그렇지 않은 유아를 함께 포함하여 다양한 집단의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을 측정하는데 어머니 보고만을 사용하였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강현경, 조형숙, 2008; 김봉정, 2007)에 근거하여 볼 때, 면접법, 관찰법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다양한 평가자를 포함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한다면 더욱 신뢰도 높은 연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육경험과 문제행동, 양육행동과 문제행동을 단편적으로 살펴본 선행 연구와 달리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육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정에서의 경험과 보육기관에서의 경험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보육경험이 점차 보편화되어 가면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육경험 자체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경험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개입, 강압,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이 장시간의 보육경험과 결합되었을 때 유아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NICHD 연구(1997)에서 제안한 이중위험모델을 지지하고 있어, 더 이른 시기에 보육을 시작하고 보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아의 경우 보육기관과 가정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보육기관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기숙, 이경남 (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려성이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4), 115-132.
- 강현경, 조형숙 (2008).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부모-교사 평가 간의 차이 비교. **유아교육학논집**, 12(2), 171-193.
- 강차연, 장연집 (1999).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 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

- 계. **아동학회지**, 20(3), 51-75.
- 고은주 (2003). 보육경험과 아동특성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공영숙, 임지영 (2012).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2(2), 351-376.
- 권미경, 김혜원, 안혜영, 이주원 (2005).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간호학회지**, 11(1), 132-141.
- 권연희 (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문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혜, 옥경희, 천희영 (2003). 어머니의 신념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4), 85-100.
- 김보영 (2005). 어머니 양육태도, 영아의 성(性), 보육기간에 따른 영아의 문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봉정 (2007). 유아의 과잉행동·충동성·부주의 행동과 부모와 교사의 평정 일치에 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미 (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숙령 (1997). 영유아기의 타아 경험과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사회정서적 문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8(2), 5-18.
- 김애경 (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51-372.
- 김정화, 이재연 (2013). 어린이집 재원시간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린이집 질적수준의 중재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2), 357-377.
- 김정희, 문혁준 (2004).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0), 23-38.
- 김지선 (2009). 가족 특성, 영아의 기질, 보육 경험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정 (2001).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기 문제행동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81-95.
- 나지혜 (2012). 어머니 및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궁수진, 최영희 (2008). 보육경험 및 보육의 질과 5세 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의 관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1), 45-54.
- 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4), 179-198.
- 문상희 (201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기질 및 문제행동의 경로모형분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은미 (2011). 보육경험, 보육시설의 질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장원 (2001). 품행장애의 예방을 위한 조기중재 전략 탐색. **정서·행동장애 연구**, 17(1), 283-305.
- 박경자 (1992). 영유아기 타인양육이 학령전 어린이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 회지**, 13(2), 217-228.
- 박서영 (200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철웅 (2003). 부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미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남녀 유아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정 (2009). 학업 스트레스, 통제소재,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 (2003). 2003년 보육실태조사보고서.
- 보건복지부 (2013a). 2013년 보육실태조사보고서.
- 보건복지부 (2013b). 2013년 보육통계.
- 서찬란 (2005). 가족 환경 요인 및 개인 심리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김민정 (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매개적 역할. **아동과 권리**, 17(1), 109-135.
- 양연숙, 조복희 (2001).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3), 67-81.
- 오경자, 이해련 (1990). 한국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증후군 연구 1: 4~5세, 6~11세, 12~16세 남아 CBCL 자료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33-55.
- 유정미, 권희경 (2009).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관련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 및 교사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교사유아관계,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논단**, 8(1), 265-290.
-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한국 유아 행동문제의 경향과 특성: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4), 53-73.
- 이경희 (1995).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유아의 기질, 가정양육 환경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아, 이경숙 (2013). 영유아의 조기보육 특성에 따른 사회정서행동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
- 이선희 (2012). 학령기 자녀의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찬숙, 이채호 (2009).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사회적 유능감, 부모의 양육태도 간의 구조모형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3(5), 27-44.
- 정인선 (2006).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혜진, 이기숙 (2004).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에 미치는 가족특성, 보육경험 및 기질 변인 분석. **유아교육연구**, 24(4), 263-285.
- 최연희 (2000). 학령전 아동의 기질, 부모의 훈육방식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지영, 김미애 (2010). 유아기질과 부모양육태도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19-137.
- 하영희 (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4), 29-40.
- 하지영 (2004).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 경험이 남녀 아동의 불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현재, 문혁준 (201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2(4), 245-274.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dam, E. K., Gunnar, M. R., & Tanaka, A. (2004). Adult attachment, parent emotion, and observed parenting behavior: Mediator and moderator models. *Child Development*, 75(1), 110-122.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London, UK: Sage Publications.
- Andersson, B.-E. (1992). Effects of day-care on cognitive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of thirteen-year-old Swedish schoolchildren. *Child Development*, 63(1), 20-36.
- Bates, J. E., Marvinney, D., Kelly, T., Dodge, K. A., Bennett, D. S., & Pettit, G. S. (1994). Child-care history and kindergarten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0(5), 690-700.
- Barglow, P., Vaughn, B. E., & Molitor, N. (1987). Effects of maternal absence due to employment on the qua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a low-risk sample. *Child development*, 58(4), 945-954.
- Barton, M., & Schwarz, J. (1981). Day care in the middle class: Effects in elementary school.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s annual convention. L.A., USA.
- Belsky, J. (1986). Infant day care: A cause for concern? *Zero to Three*, 6, 1-7.
- Belsky, J. (1997). The effects of nonmaternal care on child development.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발표 논문.
- Belsky, J. (2001). Developmental risks (still) associated with early child car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7), 845-859.
- Belsky, J., & Eggebeen, D. (1991). Early and extensive maternal employment and young children's sociomemotional development: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4), 1083-1098.
- Belsky, J., & Rovine, M. J. (1988).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the security of infant-par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1), 157-167.
- Belsky, J., Woodworth, S., & Crnic, K. (1996). Trouble in the second year: Three questions about family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7(2), 556-578.
- Booth, C. L., Rose-Krasnor, L., McKinnon, J., & Rubin, K. H. (1994). Predicting social adjustment in middle childhood: The role of preschool attachment security and maternal style. *Social Development*, 3(3), 189-204.
- Borge, A. I. H., & Melhuish, E. C. (1995).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hood behaviour problems, maternal employment, and day care in a rural Norwegian commu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8(1), 23-42.
- Briggs-Gowan, M. J., Carter, A. S., Bosson-Heenan, J., Guyer, A. E., & Horwitz, S. M. (2006). Are infant-toddler social-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ransi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5(7), 849-858.
- Burchinal, M. R., Ramey, S. L., Reid, M. K., & Jaccard, J. (1995). Early child care experiences and their association with family and child characteristics during middle childhoo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1), 33-61.
- Caldera, Y. M., & Hart, S. (2004). Exposure to child care, parenting style and attachment security.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3(1), 21-33.
- Campbell, S. B., & Ewing, L. J. (1990). Follow-up of hard-to-manage preschoolers: Adjustment at age 9 and predictors of continuing sympto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1(6), 871-889.
- Caughy, M. O., DiPietro, J. A., & Strobino, D. M. (1994). Day-care participation as a protective factor in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low-income children. *Child Development*, 65(2), 457-471.
- Chang, L., Schwartz, D., Dodge, K. A., & McBride-Chang, C. (2003). Harsh parenting in relation to child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4), 598-606.
- Clarke-Stewart, K. A. (1989). Infant day care: Maligned or malignant? *American Psychologist*, 44(2), 266-273.
- Clarke-Stewart, A., Gruber, C. P., & Fitzgerald, L. M. (1994). *Children at home and in day car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rockenberg, S., & Litman, C. (1991).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maternal and two-year-old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2(5), 930-953.
- Deković, M. & Janssens, J. M.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25-932.
-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4). Socialization medi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conduct problems. *Child Development*, 65(2), 649-665.
- Doyle, A.-B. (1975). Infant development in day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11(5), 655-656.
- Egeland, B., & Hiester, M. (1995).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infant day-care and

- mother-infant attach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6(2), 474-485.
- Emond, A., Ormel, J., Veenstra, R., & Oldehinkel, A. J. (2007). Preschool behavioral and social-cognitive problems as predictors of (pre)adolescent disruptive behavior.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8(3), 221-236.
- Field, T. (1991). Quality infant day-care and grade school behavior and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2(4), 863-870.
- Fischer, M., Rolf, J. E., Hadazi, J. E., & Cummings, L. (1984). Follow-up of a preschool epidemiological sample: Cross-age continuities and predictions of later adjustment with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dimensions of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1), 137-150.
- Garbarino, J., & Vondra, J. (1987). Psychological maltreatment: Issues and perspectives. In M. R. Brassard, R. Germain, & S. N. Hart (Eds.),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 and youth* (pp. 22-24). New York, NY: Pergamon Press.
- Haskins, R. (1985). Public school aggression among children with varying day-care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56(3), 689-703.
- Hausfather, A., Toharia, A., LaRoche, C., & Engelsmann, F. (1997). Effects of age of entry, day-care quality, and family characteristics on preschoo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4), 441-448.
- Howes, C. (1988). Relations between early child care and school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53-57.
- Howes, C. (1990). Can the age of entry into child care and the quality of child care predict adjustment in kindergart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2), 292-303.
- Howes, C., & Olenick, M. (1986). Family and child care influences on toddler's compliance. *Child Development*, 57(1), 202-216.
- Howes, C., & Stewart, P. (1987). Child's play with adults, toys, and peers: An examination of family and child-care infl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423-430.
- Hwang, H. J., & James-Roberts, I. S. (1998). Emotional and behavioural problems in primary school children from nuclear and extended families in Korea.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7), 973-979.
- Jokela, M., Power, C., & Kivimäki, M. (2009). Childhood problem behaviors and injury risk over the life cours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12), 1541-1549.
- Kail, R. V. (2011). *Children and their development*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 Kim, J., & Cicchetti, D. (2009). Longitudinal pathways linking child maltreatment, emotion regulation, peer relations,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6), 706-716.
- Kontos, S., & Fiene, R. (1987). Child care quality,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children's development: The Pennsylvania study. In D. Phillips (Ed.), *Quality in child care: What does research tell us?* (pp. 57-79).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Lemay, L., Bigras, N., & Bouchard, C. (2012). Educational daycare from infancy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Differential effect by

- children's vulnerability.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5(5), 115-127.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2), 242-259.
- MaCrae, J. W., & Herbert-Jackson, E. (1976). Are behavioral effects of infant day care program specific? *Developmental Psychology*, 12(3), 269-270.
- McCartney, K., Scarr, S., Phillips, D., & Grajek, S. (1985). Day care as intervention: Comparisons of varying quality program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6, 247-260.
- McGuire, J., & Richman, N. (1988). *Preschool Behaviour Checklist (PBCL) handbook*. Windsor, UK: NFER-Nelson.
- Miller, N. B., Cowan, P. A., Cowan, C. P., Hetherington, E. M., & Clingempeel, W. G. (1993). Externalizing in preschoolers and early adolescents: A cross-study replication of a family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3-18.
- Mize, J., & Pettit, G. S. (1997). Mothers' social coaching, mother-child relationship style,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Is the medium the message? *Child Development*, 68(2), 312-323.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5), 860-879.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8a). Early child care and self-control, compliance, and problem behavior at twenty-four and thirty-six months. *Child Development*, 69(4), 1145-1170.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8b). Relations between family predictors and child outcomes: Are they weaker for children in child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34(5), 1119-1128.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9). Child care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the first 3 years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35(6), 1399-1413.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3). Does amount of time spent in child care predict socioemotiona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74(4), 976-1005.
-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411-44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ark, K. J., & Honig, A. S. (1991). Infant child care patterns and later teacher ratings of preschool behavio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68(1), 89-96.
- Patterson, G. R., Capaldi, D., & Bank, L. (1991). An early starter model for predicting delinquency.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139-16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ettit, G. S., Harrist, A. W., Bates, J. E., & Dodge, K. A. (1991). Family interaction, social

- cognition and children's subsequent relations with peers at kindergarte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3), 383-402.
- Prodromidis, M., Lamb, M. E., Sternberg, K. J., Hwang, C. P., & Broberg, A. G. (1995). Aggression and noncompliance among Swedish children in centre-based care, family day care, and home car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8(1), 43-62.
- Richman, N., Stevenson, J., & Graham, P. J. (1982). *Preschool to school: A behavioural study*.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Rubin, K. H., Hastings, P., Chen, X., Stewart, S., & McNichol, K. (1998). Intrapersonal and maternal correlates of aggression, conflict,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toddlers. *Child Development*, 69(6), 1614-1629.
- Sagi, A., Koren-Karie, N., Gini, M., Ziv, Y., & Joels, T. (2002). Shedding further light on the effects of various types and quality of early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relationship: The Haifa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73(4), 1166-1186.
- Scarr, S. (1998). American child care today. *American Psychologist*, 53(2), 95-108.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235.
- Schwarz, J. C., Strickland, R. G., & Krolick, G. (1974). Infant day care: Behavioral effects at preschool age. *Developmental Psychology*, 10(4), 502-506.
- Shaw, D. S., Owens, E. B., Giovannelli, J., & Winslow, E. B. (2001). Infant and toddler pathways leading to early externalizing disord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0(1), 36-43.
- Tyler, S., Allison, K., & Winsler, A. (2006). Child neglect: Developmental consequences, intervention, and policy implications. *Child and Youth Care Forum*, 35, 1-20.
- Vandell, D. L., & Corasaniti, M. A. (1990). Variations in early child care: Do they predict subsequent social, emotional, and cognitive differenc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4), 555-572.
- Vandell, D. L., & Powers, C. P. (1983). Day care quality and children's free play activit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3(3), 493-500.
- Vaughn, B. E., Deane, K. E., & Waters, E. (1985). The impact of out-of-home care on child-mother attachment quality: Another look at some enduring ques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10-135.
- Vaughn, B. E., Gove, F. L., & Egeland, B. (1980). The relationship between out-of-home care and the qua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an economically disadvantaged populations. *Child Development*, 51(4), 1203-1214.
- Vlietstra, S. G. (1981). Full versus half-day preschool attendance: Effects in young children as assessed by teachers ratings and behavioral observations. *Child Development*, 52(2), 603-610.
- Volling, B. L., & Feagans, L. V. (1995). Infant day care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8(2), 177-188.
- Webster-Stratton, C., & Herbert, M. (1994). *Troubled families-problem children: Working with*

parents: A collaborative process. Chichester: Wiley.

Zhou, Q., Eisenberg, N., Losoya, S. H., Fabes, R. A., Reiser, M., Guthrie, I. K., et al. (2002). The relations of parental warmth and positive expressiveness to children's empathy-related responding and soci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3*(3), 893-91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of day-care experiences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 on preschooler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 total of 248 preschoolers(112 boys and 136 girls)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Mothers provided information about their children's day-care experiences(i.e., age of entry, hours per week, days per week, and number of day care centers attended by the preschoolers), their parenting behavior, and their children's problem behavior. Data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s, multiple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and post-hoc analysis suggested by Aiken and West(1991). First, preschoolers who frequently changed day-care centers showed higher levels of aggression. Second, maternal logical explanation, coercive and neglecting parenting behavior significantly influenced preschooler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Finally, interactions of day-care experiences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 were significant in predicting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ay-care experiences need to be considered with other family variables in predicting preschoolers' developmental outcomes.

▶*Key Words* : *day-care experiences,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논문투고 2015. 02. 15.
수정원고접수 2015. 04. 01.
최종게재결정 2015. 04. 09.